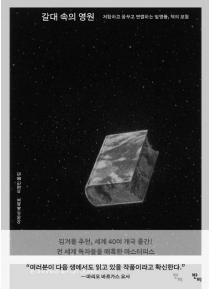


수천년 살아남은 책의 모험과 역사

갈대 속의 영원

이레네 바예호 지음, 이경민 옮김

아마도, 지금은 사라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은 '책과 도서관'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공간일 것이다. 사람들은 기원전 3세기에 문을 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공간과 더불어 상상의 나래를 펴곤 한다. 이 거대한 도서관에 세상의 모든 책을 모으는 꿈을 꾸던 이집트의 왕들은 자신의 컬렉션을 갖추려고 절대권력을 휘둘렀고, 책 사냥꾼의 이야기 등 책과 관련된 사실과 가문의 이야기들이 일대됐다.



2002년 이집트에 문을 연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은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꿈꿨던 고대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이념을 계승한 공간이다. <위키미디어 커먼즈 제공>

를 넘나드는 슬한 자료와 자신의 경험 등이 함께 어우러져 흥미롭게 읽힌다. 특히 소설과 그림책을 쓰는 그의 이야기꾼으로서의 역량이 발휘돼 역사, 에세이, 우화를 넘나드는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을 선보인다. 그의 말처럼 '상상의 근육'과 '실제 자료'가 절묘하게 결합된 책이다.

저자는 책은 언제 발명되었을까? 책을 없애려는 비밀스런 노력의 역사는 무엇일까? 얼마나 많은 책이 분노로 인해 불탔으며 어떤 책이 열정적으로 필사되었는가?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어나간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은 흥미롭다. 원정 중 늘 배에 밑에 단검을 넣어두고 잠을 청하던 최고의 전쟁 영웅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늘 조인과 통찰을 구했고, 이 책을 품에 안은 채 잡들었다. 독서는 마치 나침반처럼 그에게 미지의 길을 열어주었다.

알렉산드리아에 입성한 로마의 강력한 장군 안토니우스는 보석 등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클레오파트라

를 유혹하기 위해 도서관에 비치할 20만권의 책을 그녀에게 바친다. 고대의 전령은 뒤통수에 문신을 새겨 말 그대로 피부에 쓰인 비밀 문서를 운반했고, 나치강제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상상력의 힘과 말에 대한 믿음인 책에 의지하며 살아나기도 했다.

책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번역이라는 세계, 복제와 상업화를 통한 책의 전파, 분서갱유와 검열 등으로부터 살아남은 책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책과 도서관에 대한 저서인 만큼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책들은 또 다른 읽기의 즐거움으로 독자를 이끈다.

저자는 "책은 시간의 힘을 뛰어 넘으며 장거리 주자임을 입증했다. 우리가 혁명의 꿈에서 혹은 파국적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책은 거기에 있었다. 움베르토 에코가 지적하듯이 책은 손가락, 망치, 바퀴, 가위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한번 창조된 이후로 그보다 나은 게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반다>2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대한제국망국사=역사칼럼니스트인 김세곤 호남역사위원장이 국내외의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을 펴냈다. 저자는 1897년 10월에 탄생한 대한제국이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 속에서 자주독립과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할 마지막 기회였지만 탄생 13년 만인 1910년 8월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과정을 다루고 있다. 대한제국 탄생 전야, 대한제국 탄생과 독립협회 활동, 제3장 대한제국 황제 1인의 나라, 제4장 라이벌전쟁 발발과 예술-미신에 빠진 고종, 제5장 포츠머스 조약과 을사늑약, 제6장 헤이그 특사와 망국으로 구성돼 있다. <도서출판 온새미로>2만3000원



▲내가 여기 있어요=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신의학자이자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추앙받는 크리스토프 앙드레가 전하는 기적같은 위로의 힘. 우리 삶에 쏟아지는 모든 슬픔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라는 우산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 책이 위로에 관한 책에 머무르지 않고 부디 위로하는 책이 되기를 바란다. <불광출판사>1만9000원

▲엄마들이 있다=좋은 엄마가 되는 수만 가지의 길을 보여주는 엄마들의 이야기. 현직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은이 엄마로서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엄마'들의 인터뷰를 담았다. 엄마로 사는 이유, 엄마와 딸의 시간, 엄마들을 위하여, 엄마의 마음으로 등 수만가지 좋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준다. <헤이북스>1만8800원

▲그림책 생활=시인이자 편집자로 오랜 시간 언어의 세계 안에서 살아온 서효인 작가의 산문집. 1부 '너를 사랑한다', 2부 '사랑을 배우다'로 나누어져 있다. 저자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그림책을 읽으면 된다"며 '그림책 생활'을 제안한다. 가족과 저자의 애뜻한 그림책 생활이 펼쳐진다. <달>1만5000원

지속가능한 특화형 로컬리즘만이 소멸위기 지방 살린다

인구소멸과 로컬리즘

전영수 지음

합계출산율 0.78(2022년).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102개 가량이 소멸위기에 진입했다. 반면 국토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52%의 인구가 몰려있다. 초고령사회와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드는 한국의 현주소이다. 정부는 인구대책이 지난 20년 동안 3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요즘 '먹이(고용)가 없어 서울에 왔더니 동지(주거)가 없어 알(출산)을 못 낳는다'라고 비유한다.



로컬리즘인가 ▲누가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로 구성된다. 저자는 "229개 기초지자체는 229개의 로컬 모델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로컬리즘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또 한국사회의 미래지속을 위한 새로운 실험이다"며 차별화된 지역특화적 창발(創發) 모델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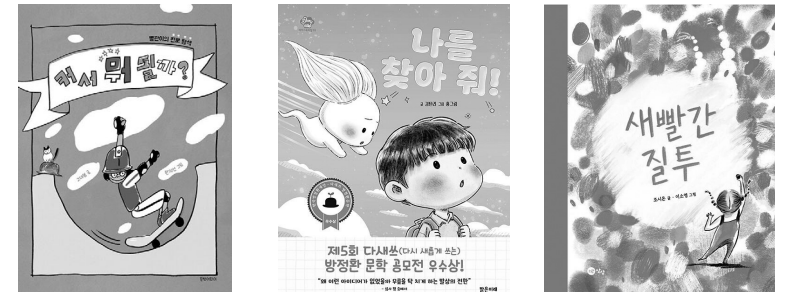
또한 저자는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로컬리즘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이론과 사례를 들어 하나하나 풀어낸다. 지역고용 창출의 일등공신인 '양키의 호랑이'를 비롯해 로컬리즘 플랫폼인 '마을 만들기 회사', 최소단위 거점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200m론(論)' 등이 흥미롭다. 일본 경제학자 마카베 아키오가 지역혁신 주제로 꼽는 3대 인적자원(고령자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청년', 과거 가치관에서 자유로운 '바보'(馬鹿者), 조직 바깥에서 기존 구조를 비판적으로 보는 '외지인')이 눈길을 끈다. 저자는 지역주민을 선택으로, 3대 인적자원을 착화제로 비유하며 "결국 중요한 것은 지역활성화를 하려는 의지

와 진정성이다"고 말한다.

일본 후쿠이현은 자치교육을 비롯해 시민주역, 지역문화, 혁신제품, 여성고용의 5대 키워드로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광역지자체 1위'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유명 대학이 없는 사바에서는 여고생의 자발적인 지역활성화 활동제안 프로그램(사바에서 JK과)과 외지 고등·대학생이 본인을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사업화하는 '지역활성화 플랜 콘테스트' 등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저자는 타 지역 성공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복붙'(복사후 붙이기) 하지 말고, '청년인재+지역공간+특화제품' 협업처럼 '지역마다의 특화내용을 올곧이 담아내는 차별화 전략'으로 자생력이 담보된 지역화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힌다. 소멸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특화형 로컬리즘'을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인 전략과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이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리의 펴냄>2만5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커서 뭐 될까?= 미래를 고민하는 초등학교 5학년 병관아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빠처럼 되는 것이 꿈이지만 하고 싶은 직업은 없는 병관아, 취미이자 특기를 살려 프로그래머가 되려는 이언이,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빨리 돈이 벌고 싶어 직업을 선택한 민호가 중심이 되어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렸다. <길벗어린이>1만4000원

가 등장하지만 책 속 오빠와 동생이 현명하게 풀어낸다. 흥그림 작가의 그림이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긴장감 있게 잘 이 끌고 있다. <밝은미래>1만3000원

▲나를 찾아 줘= 소파 방정환이 쓴 아동 탐정 소설의 고전 '동생을 찾으러'를 모티브로 한 '나를 찾아 줘!'가 제5회 다채스 방정환 문학 공모전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납치라는 절그러울 수 있는 소재

▲새빨간 질투= 계절의 변화에 따라 빨강의 심리 변화를 그려 내며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되는 질투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냈다. 그동안 외면하고 부정해 왔던 마음들을 하나 둘 꺼내보며 질투를 온전하게 마주하는 용기를 전달한다. 질투의 힘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슬기롭게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란상상>1만4000원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